2018. 5. 2. (수) 언론보도

경인일보 2018년 5월 2일 수요일 002면 종합

'남북회담덕에…' 경기북부 접경지 몰리는 관광객

회담후 임진각내 커피매출 2배↑

道, 인프라 구축 콘텐츠 개발키로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 분위기가 형성되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접경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1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7일 이후 임진각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 1천800여대 규모의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또 하루 400~500잔 판매되던 임진각 내 커피전문점도 하루 매출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접경지 관광 수요가 늘어났다. 경기관광공사가 주한 미군 주둔지 '캠프 그리브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캠프에도 최근 이용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이 확정된다면 국내외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임진각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는 한편, 그간 추진해온 경기·강원 접경지 대상 통일경제특구 지정 등을 위한 실무추진단도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오후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와 DMZ가 '분단의 상징'이 아닌 '평화의 상징'이 된다면 접경지 관광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새롭고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세계일보 2018년 5월 2일 수요일 Z14면 지방종합

최북단 파주·연천 부동산 들썩 '평화 상징' 임진각 관광객 북적

농지 등 경매 매물 잇단 낙찰 호재
DMZ 체험 캠프 참여 문의도 쇄도
경기도 "통일경제특구 추진단 구성"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경기 파주와 연천 일대가 남북정상회담의 훈풍으로 세계인의 관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안보관광지로 명맥을 유지하던 임진각 일대는 평일에도 일반인 관광객이 쇄도하는 관광명소로 변했고, 경매에서 3~4차례 유찰되던 연천의 공한지가 주인을 찾는 등 부동산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2일 파주시·연천군과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평소 주말에 빈자리가 적지 않았던 임진각 주변 1800여대의 주차장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일에도 가득차고 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임진각을 통해 북한을 보거나 인근 땅 등 부동산 시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경기관광공사가 주한 미군 주둔지 '캠프 그리브스'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캠프에도 최근 이용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캠프 그리브스에서는 1박2일 일정으로 DMZ 체험을 할 수 있고,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앞으로 남북정상 간 합의사항이 추진되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판문점에서 열린다면 이 일대 국내외 관광객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접경지역이 국내외로부터 관심을 받으면서 안전문제 때문에 기피대상이었던 파주와 연천 지역의 땅 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됐다. 파주읍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통일로 인근에 붙어 있는 땅과 문산에서 임진각까지 민통선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땅들이 '금싸라기'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 여파는 북한의 총탄이 수시로 날아들던 연천까지 이어져 지난해부터 계속 유찰되던 한 야산 잡종지가 금세 주인을 찾았다. 또 최저입찰가가 7400여만원이던 논이 9000만원 가까이에 낙찰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경기도는 임진각을 대한민국 대표 안보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추진하고, 경기·강원 접경지 대상 통일경제특구 지정 등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임진각의 야간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평화누리 캠핑파크를 조만간 완공하며, 평화 원점 설치 및 평화의 철길 등을 조성해 임진각을 '글로벌 이슈형 관광지화'하기로 했다.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내 커피전문점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경기관광공사 제공

경기신문 2018년 5월 2일 수요일 017면 오피니언

주목받는 'DMZ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이후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여러모로 소외된 접경지역 주민들은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냉면집이 붐비고 파주 등 안보 관광지엔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한반도의 봄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회담의 성과인 '비핵화'와 '종전'으로 인해 영구적인 평화를 모든 국민들이 희망하겠지만 가장 간절한 사람들은 실향민과 이산가족, 그리고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일 것이다.

본보 보도(4월 30일자 19면)에 따르면 파주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대성동 마을은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역이다. 연천지역 민통선 마을인 횡산리 주민들의 표정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눈에 띄게 밝아졌고 마을 분위기도 분단 이후 최고조라는 소식이다.

물론 투기 세력들로 인한 부동산 경기 과열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DMZ 관광'이다. 지난달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1차 DMZ 정책포럼'에서는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DMZ 일원의 잠재된 역사·문화 자원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DMZ 관광은 '안보와 생태적 가치'에 집중됐었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이 일대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이제는 역사적 자원들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코스를 제시해 더 많은 관광수요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에는 선사 유적지와 박물관, 삼국시대 은대리성, 당포성, 호로고루성, 고려시대 숭의전, 윤관장군 묘, 용미리 석불입상, 조선시대 반구정과 화석정 등이 있다.

경기도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광역연계사업'과 'DMZ와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계획'을 제안했다. 두 정상의 성공적인 만남으로 DMZ가 더욱 관심을 끌 것이므로 "DMZ가 냉전의 유산이 아닌 삶·평화·미래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역사· 문화의 참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박신환 도 균형발전기획실장)는 것이다. 생태와 안보, 역사와 문화가 있는 평화의 공간인 DMZ는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관광명소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중부일보 2018년 5월 2일 수요일 001면 종합

트럼프도 판문점 오나 '접경지 안보관광' 뜬다

남북정상회담 후 관광객 급증

남북정상회담 이후 파주 임진각과 판문점이 국제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1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남북 정상회담으로 판문점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지면서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 추진되면서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판문점에서 열린다면 이 일대 국내외 관광객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임진각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객 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그동안 도가 추진해 온 경기·강원 접경지 대상 통일경제특구 지정 등을 위한 실무추진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 실무추진단은 관광과 제조 등 산업 분야는 물론 지역균형 발전 등 각 분야 발전을 위한 추진 방향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전망이다.

도는 정상회담 전부터 임진각을 대한민국 대표 안보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 추진 중이다.

임진각의 야간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평화누리 캠핑파크를 조만간 완공하며, 평화 원점(Peace Zero) 설치 및 평화의 철길 등을 조성해 임진각을 '글로벌 이슈형 관광지화'한다는 구상이다.

도와 함께 임진각을 운영 중인 경기관광공사도 올해 임진각 주변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DMZ 평화가족한마당과 나라사랑 DMZ체험캠프·DMZ 세계시민나눔캠프·경기힐링뮤직페스티벌·DMZ 트레일 러닝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판문점 일대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파주뿐만 아니라 연천 등 도내 접경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와 긴밀히 협의하며 세밀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조윤성기자

경기신문

2018년 5월 2일 수요일 001면 종합

평화의 봄바람 부는 곳으로… 붐비는 임진각

남북정상회담 후 관광객 급증

道·경기관광공사 손잡고
접경지 관광산업 활성화 박차
통일경제특구 실무추진단 구성
'글로벌 이슈형 관광지화' 구상

"임진각이 붐빈다." "판문점이 떴다."

"하루 400~500잔 판매되던 커피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하루 700~800잔 판매되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1일 임진각 내 커피전문점 '카페안녕'에서 판매되는 커리가 하루 700~800잔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 임진각 주변 1천800여 대 규모의 관광객 주차장도 회담 직후에는 만차였다고 덧붙였다.

경기관광공사가 주한 미군 주둔지 '캠프 그리브스'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캠프에도 최근 이용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캠프 그리브스에서는 1박2일 일정으로 DMZ 체험을 할 수 있고,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실 등도 운영되고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판문점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지면서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 추진되면서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판문점에서 열린다면 이 일대 국내외 관광객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임진각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객 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그동안 도가 추진해 온 경기·강원 접경지 대상 통일경제특구 지정 등을 위한 실무추진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 실무추진단은 관광과 제조 등 산업 분야는 물론 지역균형 발전 등 각 분야 발전을 위한 추진 방향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전망이다.

도는 정상회담 전부터 임진각을 대한민국 대표 안보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 추진 중이다.

임진각의 야간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평화누리 캠핑파크를 조만간 완공하며, 평화 원점(Peace Zero) 설치 및 평화의 철길 등을 조성해 임진각을 '글로벌 이슈형 관광지화'한다는 구상이다.

도와 함께 임진각을 운영 중인 경기관광공사도 올해 임진각 주변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DMZ 평화가족한마당과 나라사랑 DMZ체험캠프·DMZ 세계시민 나눔캠프·경기힐링뮤직페스티벌·DMZ 트레일 러닝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할 계획이다.

오후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조만간 구성될 판문점 인근 접경지 관련 각종 사업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상협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도 "판문점 일대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파주뿐만 아니라 연천 등 도내 접경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와 긴밀히 협의하며 세밀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